

1화 “싸우는 정의의 퓨어파이터 더블!”

시간은 20XX년---

인류는 갑자기 나타난 괴물의 공포한 어리석음에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괴물들은 인간을 흉내 내어 인류 멸망을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괴물들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몸을 던져 싸우는 영웅이 있었다!



“끼아아아아아!
누가 좀 도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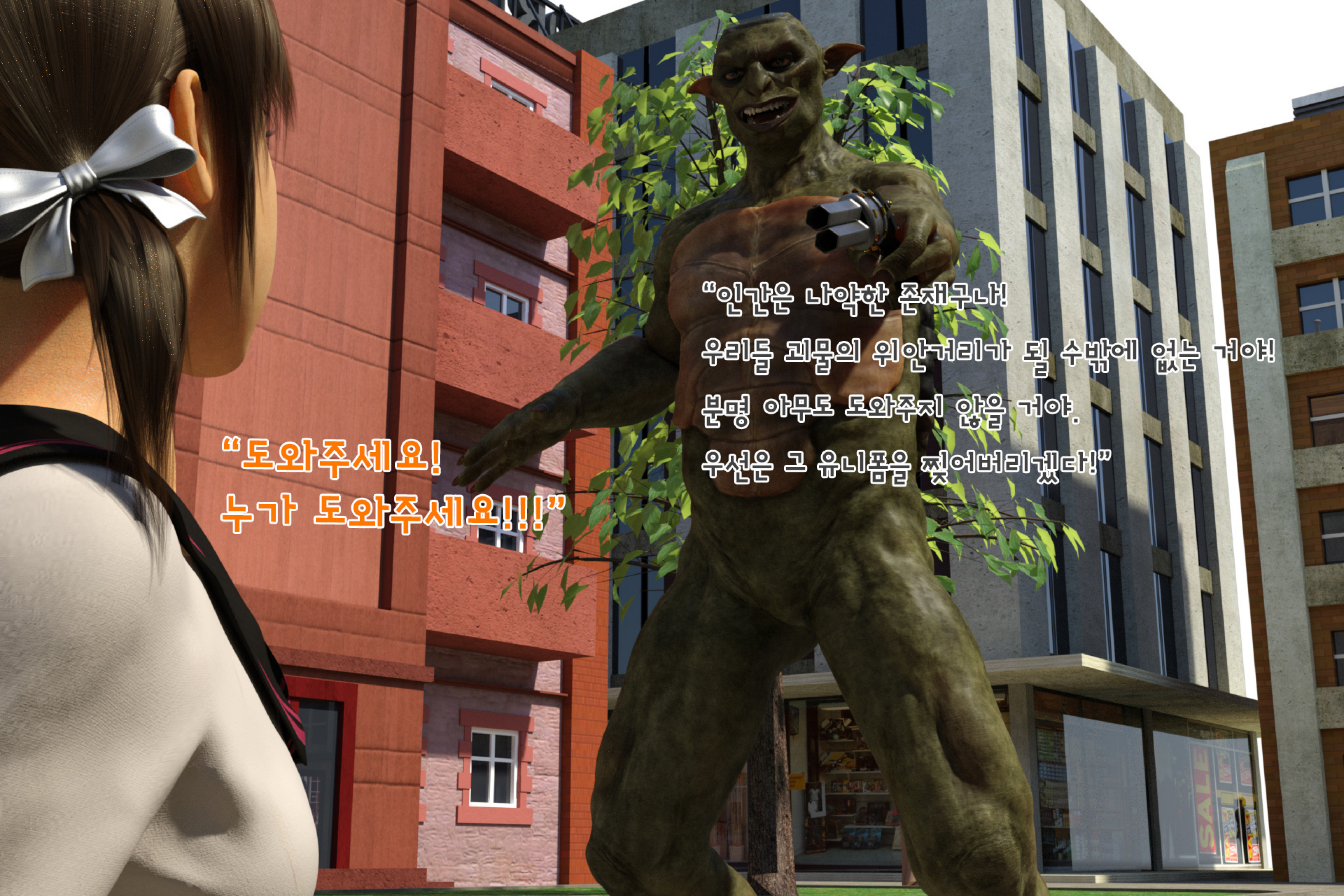
“구헤헤헤헤!
아주 맛있어 보이는 여자애다!
이놈의 나! 괴인 거북총의 먹잇감이 되어라!”

생물괴물 거북이 총

거북이 갑은 등껍질과 왼손에 흉포한 총을 들고 있는 괴물.
등껍질은 타이아몬드보다 단단하고 방어력이 높다!
왼손에 든 총도 파괴력이 뛰어나다!

“내 충알을 맞고 살아난 사람은 없다!
게다가 옷만 찢어 버리는 것도 가능하타!
죽이기 전에!
한 번만 즐기고 나서 죽여주마!”

“히이~!
엉덩이가 빠져서 서지 못해서 도망칠 수 없어~!”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인간은 나악한 존재구나!
우리들 괴물의 위안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분명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우선은 그 유니폼을 찢어버리겠타!”

“이...

누구야 이놈아!!!!”

“거기까지다 괴물아!
여자애를 풀어줘!”





“인간 한 명이 나를 상대할 수는 없지!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이 여자가...”



“더 이상 마음대로
모하게 한 거야!
우리가 너희 괴물을
막아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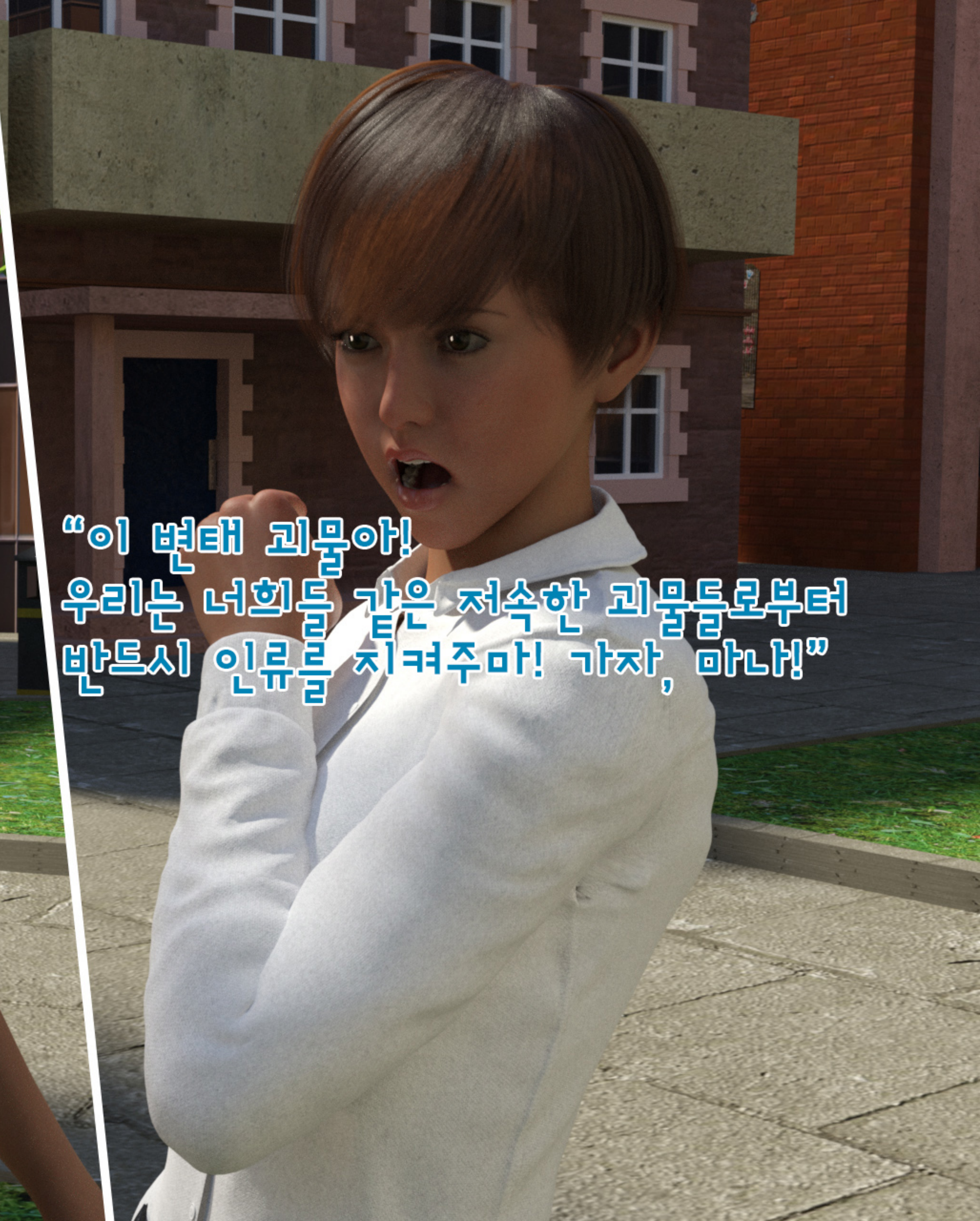
“아...! 켜장!
내가 나중에 몰래 즐기려고 했는데!”

“이제 괜찮아!
혼자 설 수 있겠어?
빨리 대피해.”

“멋진 언니!고마워요!”



“유키, 알았어!
함께 체인지해서
괴물을 쓰러트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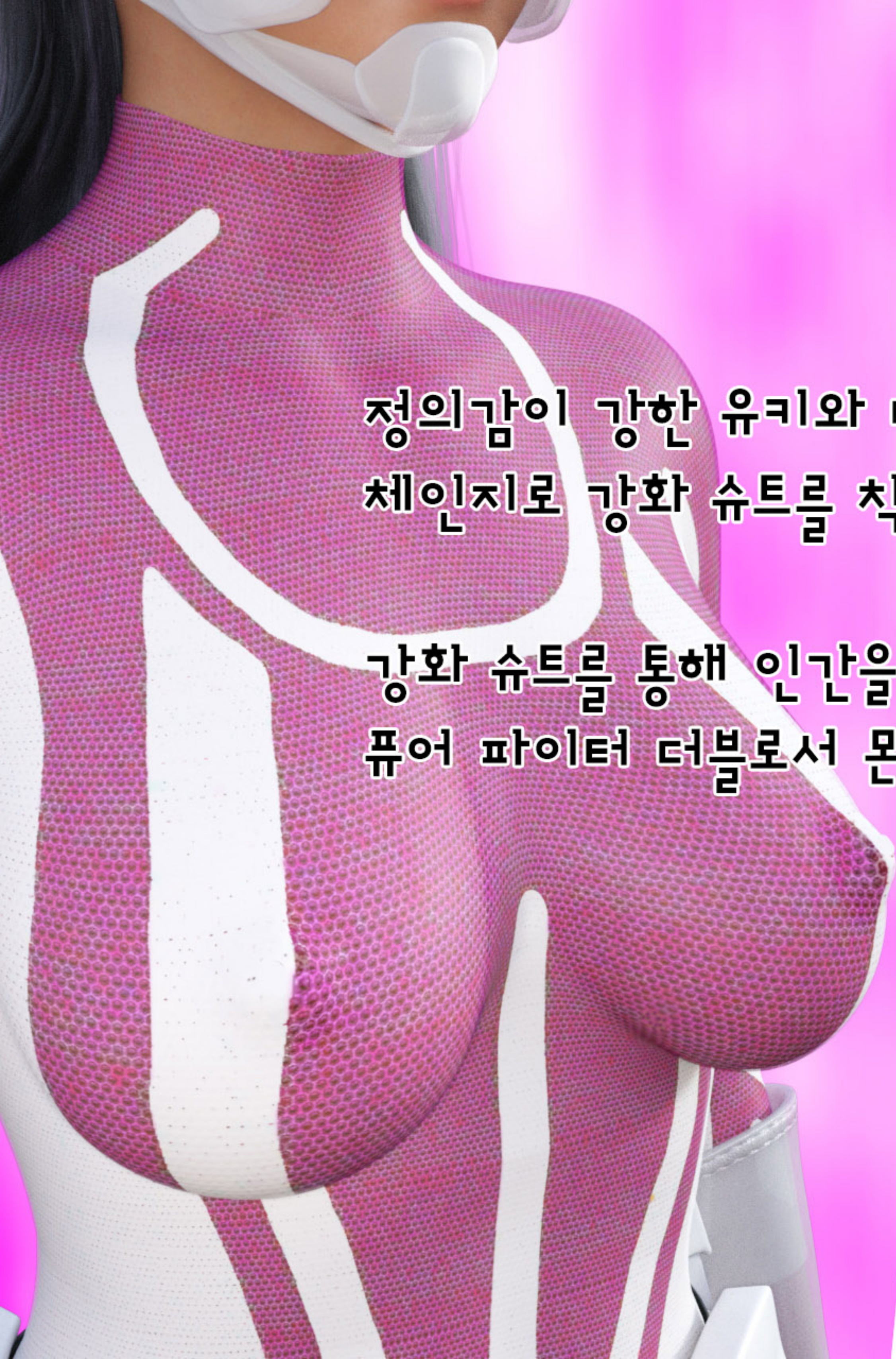


“이 변태 괴물아!
우리는 너희들 같은 저속한 괴물들로부터
반드시 인류를 지켜주마! 가자, 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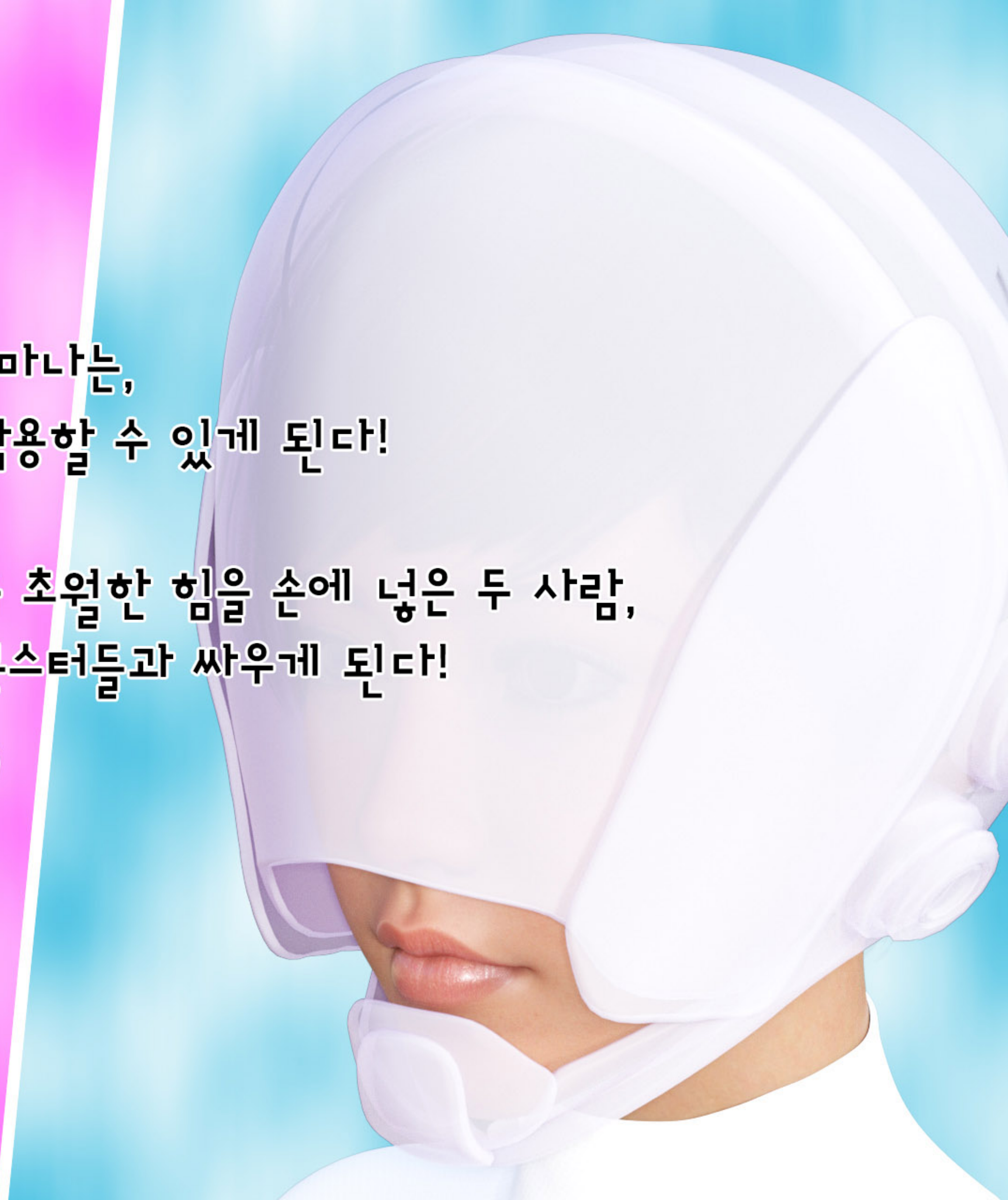


'change ! ! ! !'

'change ! ! ! !'



정의감이 강한 유키와 마나는,
체인지로 강화 슈트를 착용할 수 있게 된다!




강화 슈트를 통해 인간을 초월한 힘을 손에 넣은 두 사람,
퓨어 파이터 더블로서 몬스터들과 싸우게 된다!



"퓨어 파이터 핑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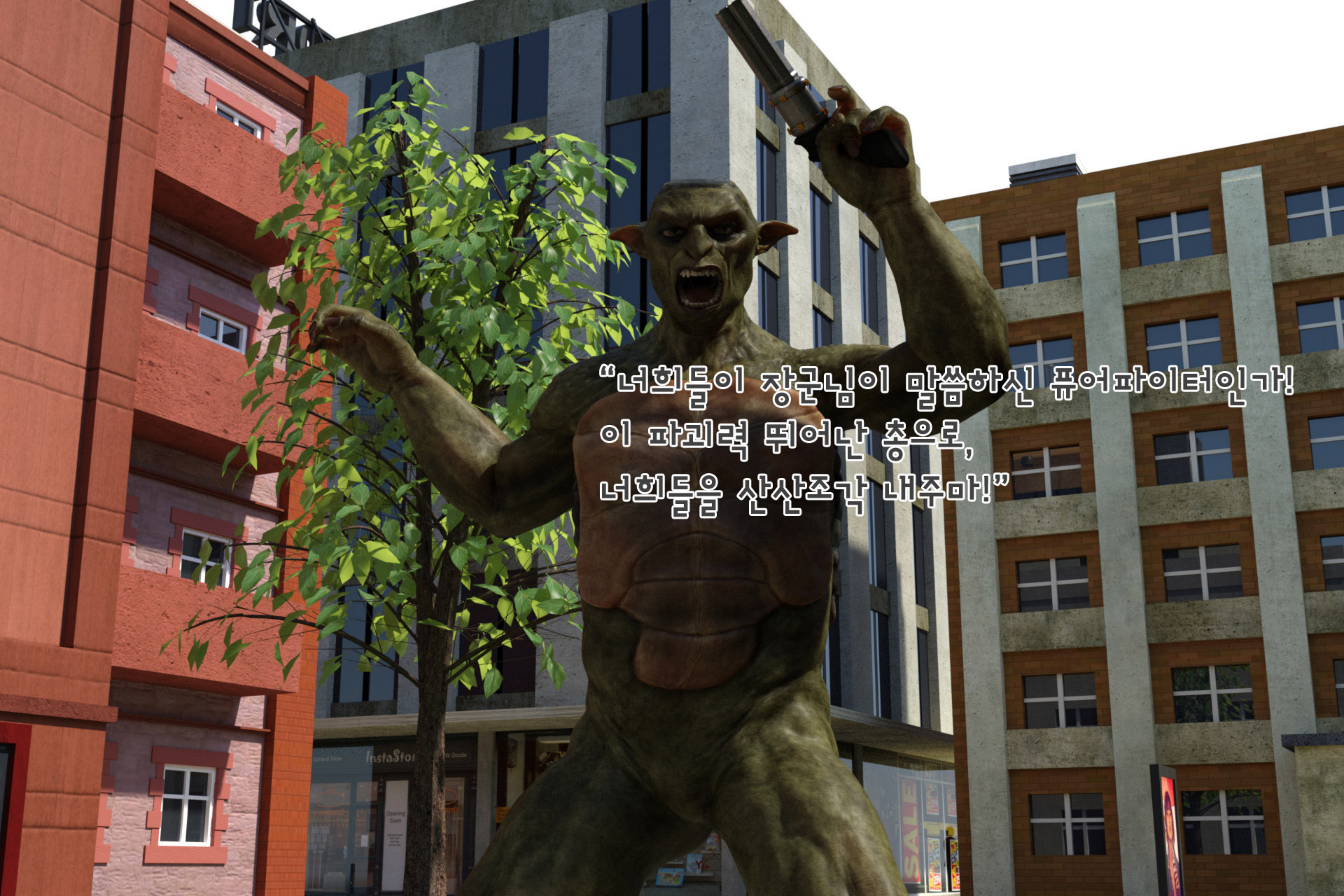


"퓨어파이터 블루!"

Two anime-style characters are shown in a city setting. The character on the left is wearing a pink and white suit with a black visor and is pointing forward. The character on the right is wearing a blue and white suit with a blue visor and is also pointing forward. They are standing on a paved area with a brick building and a tree in the background.

“두 사람의 힘으로 괴물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는 다! 우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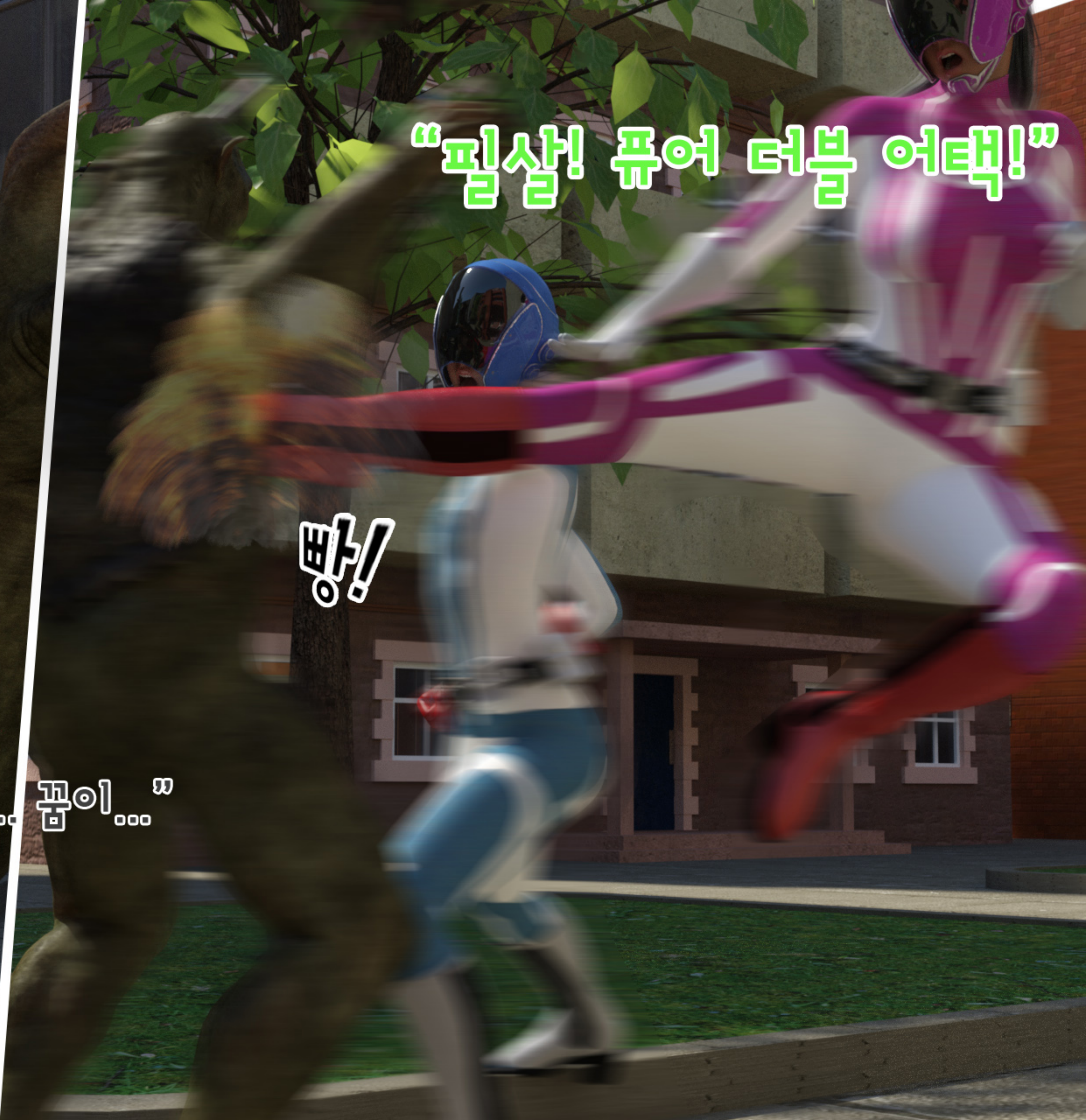
“퓨어파이터 더블!!!”



“너희들이 장군님이 말씀하신 퓨어파이터인가!
이 파괴력 뛰어난 총으로,
너희들을 산산조각 내주마!”



“으아아아아아아 !!!!
오... 내 인류 멸망의... 꿈이...”



“필살! 퓨어 더블 어택!”

탕!

키

녀

여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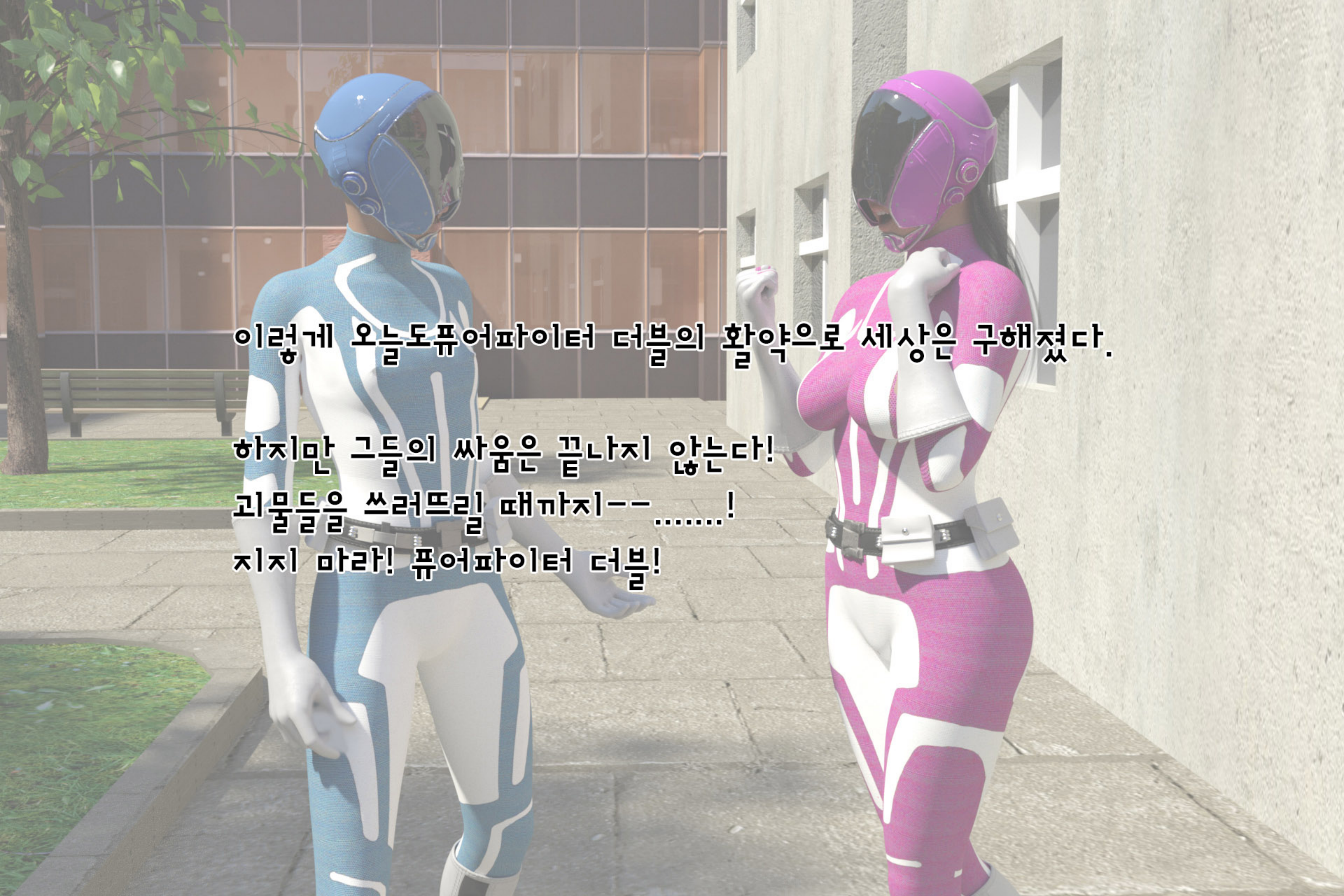
모



“오늘도 결정됐네!”

“박사가 개량한 강화 슈트 덕분이야,
단시간에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The image shows two characters in futuristic, form-fitting suits standing on a paved walkway. The character on the left is wearing a blue and white suit with a blue helmet. The character on the right is wearing a pink and white suit with a pink helmet. They are both looking towards the right.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building with large glass windows and a tree on the left.

이렇게 오늘도 퓨어파이터 더블의 활약으로 세상은 구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괴물들을 쓰러뜨릴 때까지--.....!

지지 마라! 퓨어파이터 더블!

괴인 대책 지부

활동을 마친 퓨어파이터들의 휴식처.

어딘가에 몬스터가 출현하면 본부에서 이 지부로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퓨어파이터가 출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데이트된 강화복의 착용감은 어때요?”

다일로 박사

퓨어파이터의 강화 슈트를 발명한 남자.
이 대책 지부에서 퓨어파이터를 지원하고 있다.

“항상 고마워요, 박사님!
우리만으로는 괴물을
쓰러뜨릴 수 없었어요.”

“박사님 덕분에 오늘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독수리도 기뻐요.”



“그러고 보니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독수리는 내일부터 장기 휴가를 떠날 예정이야.

내가 없는 동안 강화 슈트를 업데이트할 거야,
마나, 너에게 맡겨도 괜찮겠지?

평소 날 도와주는 너라면,
본부에서 받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 거야.”

“네, 맡겨 주세요.

박사님은 일 따위는 잊어버리고 안심하고 여행을 즐기세요!”

“만약을 대비해 마나군의 강화복만 업데이트해 놓았어.

지금까지의 강화복보다 파워와 속도도 더 높아졌어,
마스크에는 전투 지식과 적 탐지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보다 더 쉽게 괴인들을 섬멸할 수 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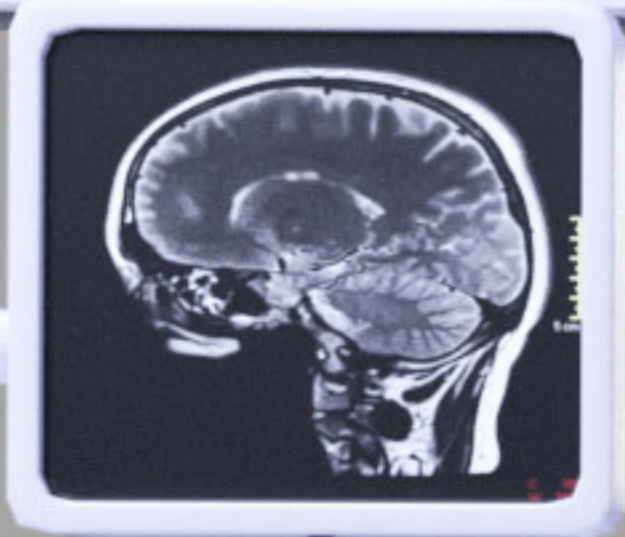
“그럼 나는 이쯤에서 실례할게!
나머지는 젊은 부부에게 맡길까.”

“그래...그!”

우리는 전투의 파트너이지...
그런 친밀한 사이에서는 “

“잠깐만요 선생님!
우리는 커플이 아니에요!”





“아! 그랬군요!

둘이 사귀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아, 그만하세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날 밤...

“오늘 박사님한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이가 들통난 줄 알고 당황했어.”

“진짜야!
우리가 연인 사이라는 게 알려지면,
영웅으로서의 인상이 바뀌어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지.”

“그런데 우리들의 싸움은 항상
쉽게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좀 더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유키는 아직 어린애잖아!
빨리 괴물을 퇴치하지 않으면 주변에
피해가 가는 거 알잖아?
TV 속 영웅처럼 오래 싸웠다면,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와, 알아요! 농담이라고.
마나는 진지하네.
뭐, 그런 마나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

ING OVER YOUR H



“안♡안♡안♡안♡유키♡중아♡”

우리는 영웅으로 활약하기 전부터 연인 사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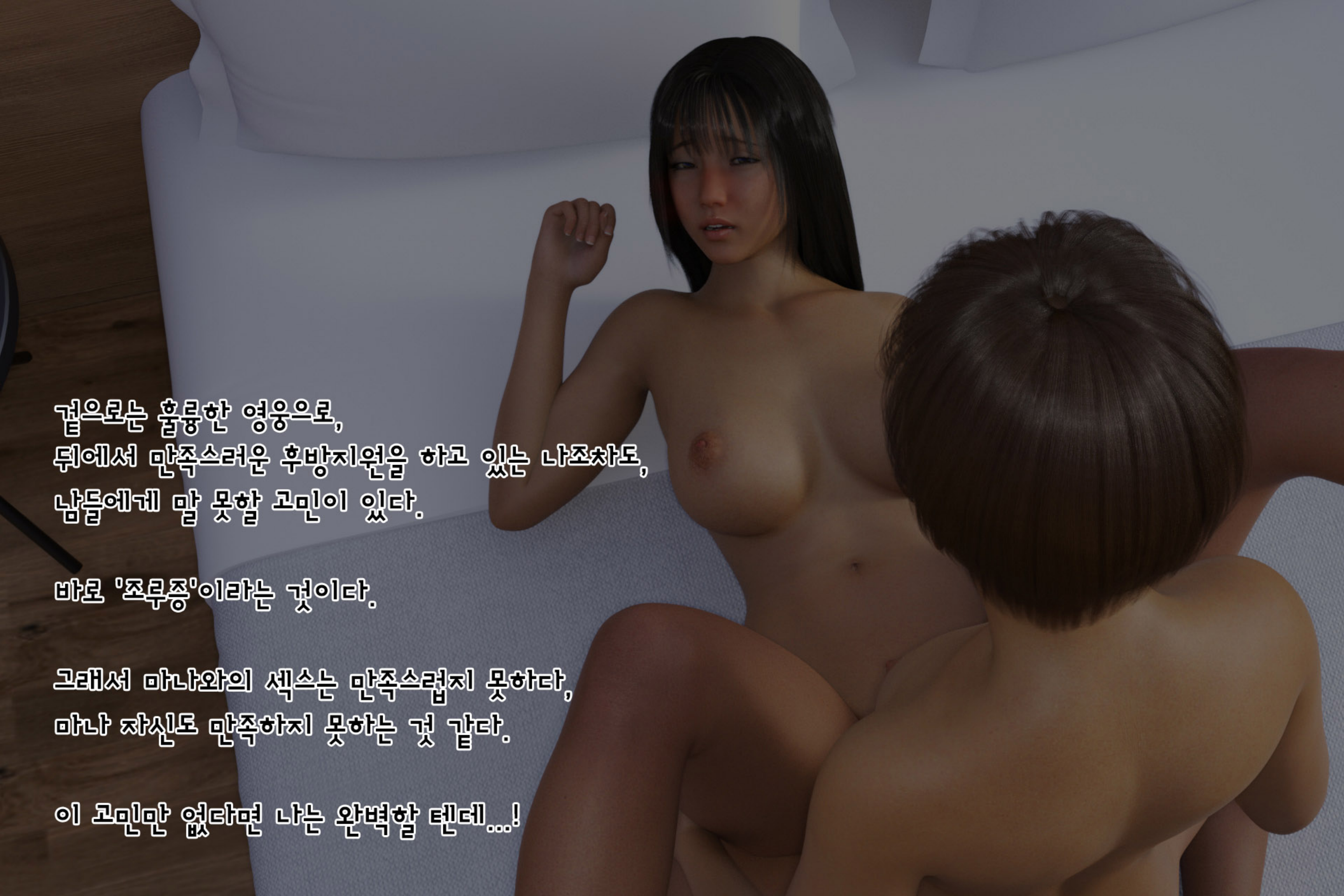
서로의 임무가 끝난 후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포옹하고 사랑하고 있다.

인류를 지키는 영웅이기 전에 우리도 인간이다.

“아, 아, 아, 아!
사정한다...!!!!”

“아...아...”





겉으로는 훌륭한 영웅으로,
뒤에서 만족스러운 후방지원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다.

바로 '조루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나와의 섹스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마나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고민만 없다면 나는 완벽할 텐데...!

그런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났다!

“응, 지금 순찰 중이야.
괴물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평화 그 자체야.
끝나면 바로 돌아갈게요.”


“박사님이 업데이트해 준
강화복의 성능을 시험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편리하게 괴물이 . . .”

“언니! 언니 도와주세요!”

“너, 그 때 그 여자애?
무슨 일이야?”

“아,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저기요, 저기 건물 뒤편에
몬스터가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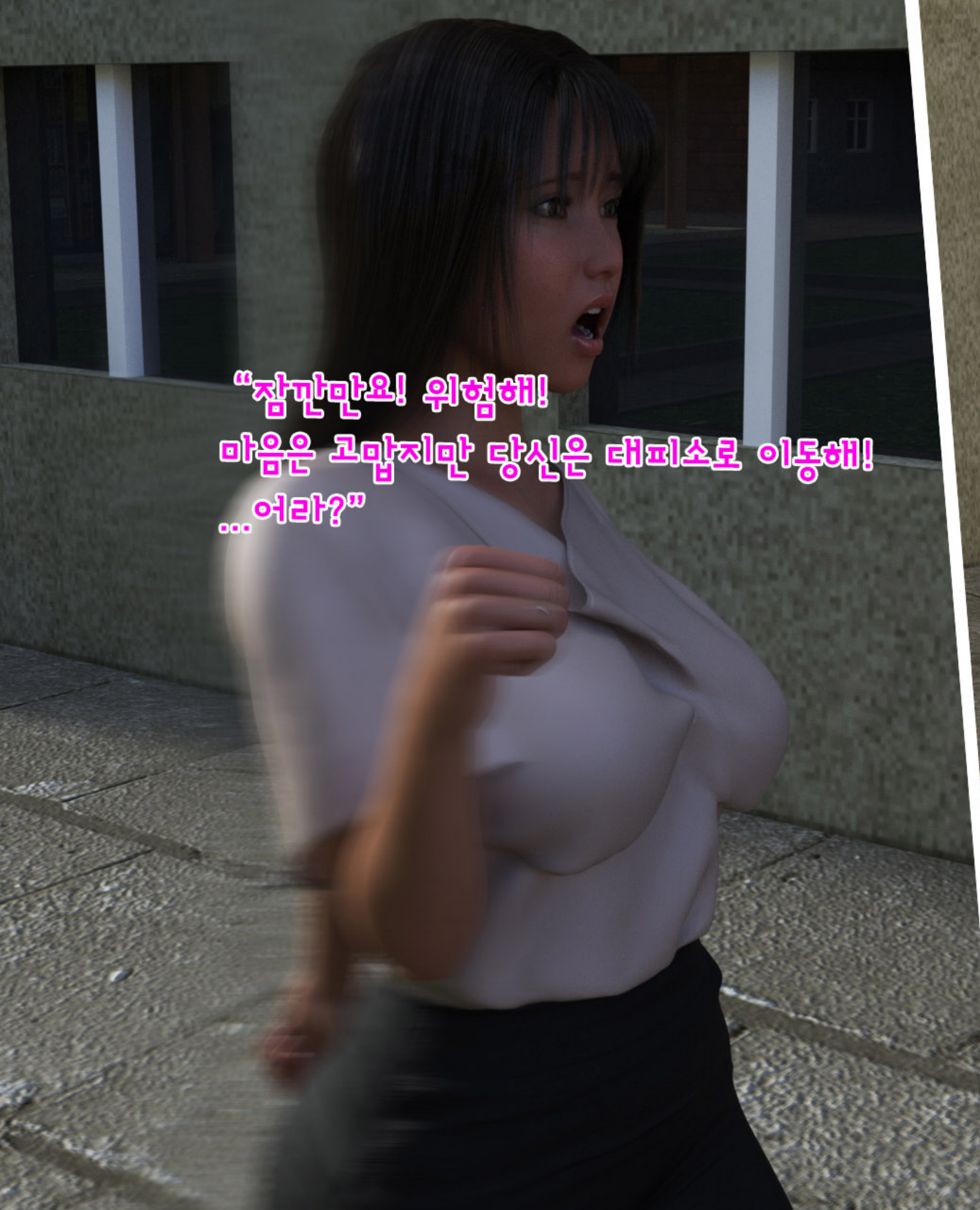
“괴물? 그건 위험해!
하지만 당신이 안내할 필요는 없어.
안심하고 대피하세요.

나한테는 괴인 감지 기능이 있으니까...”


“안내해 드리게요!
따라오세요!”

“어! 잠깐, 잠깐만요!”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잠깐만요! 위험해!
마음은 고맙지만 당신은 테피소로 이동해!
...어라?”



“없어!
저 아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터에 걸렸군,
퓨어파이터 마나!”



“누구야! 모습을 드러내라!”

“나는 괴인 장군 마오!

퓨어 파이터 마나,

너는 나의 포로가 될 것이다!”

괴인 장군 마오

젊은 여성을 노리고 납치한다.

자신의 부하로 세뇌시킨 후 전투원으로 취급하는 비도덕적인 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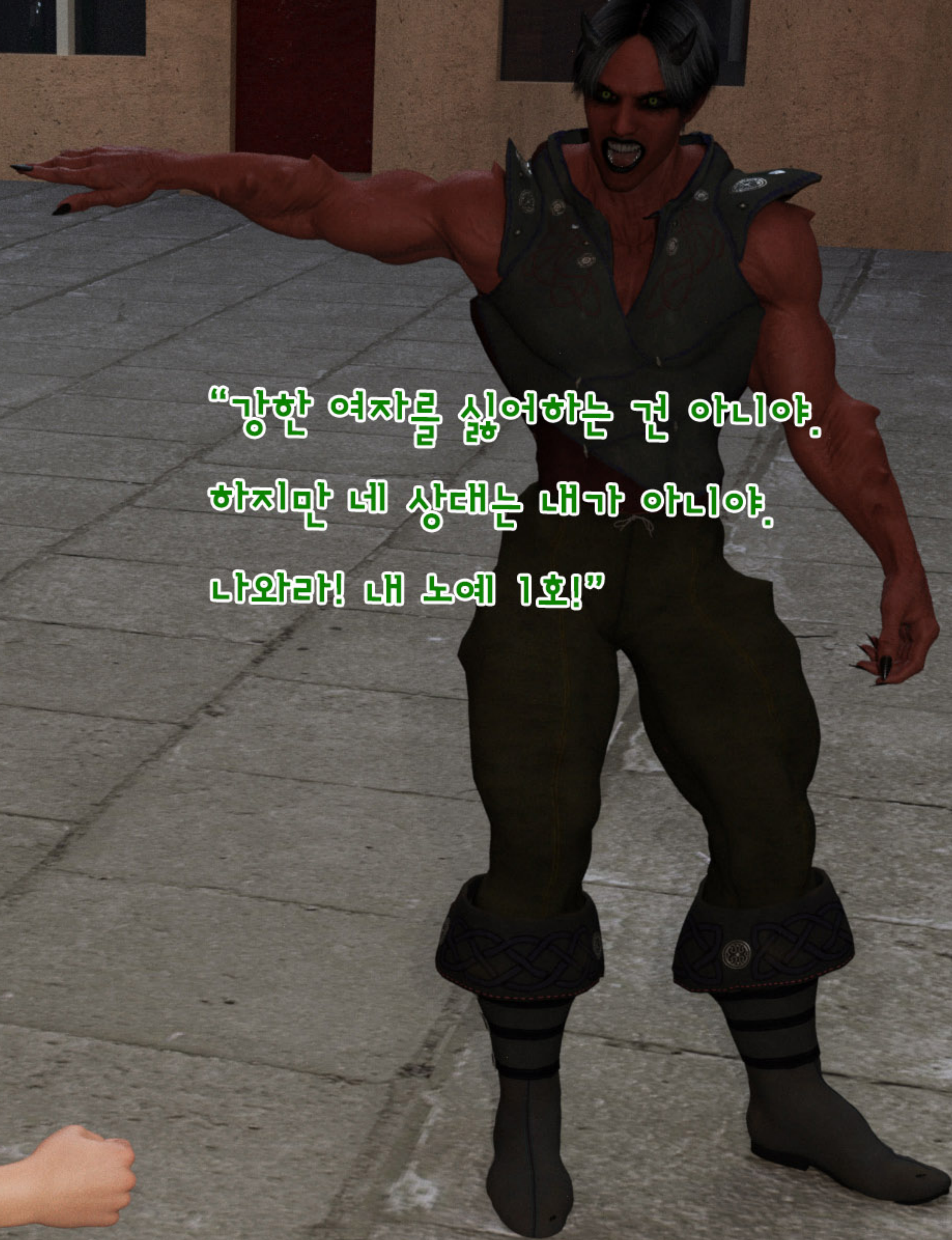
괴인들의 상관이기도 하다.


“퓨어 파이터 유키가 없어서 아쉽다.
귀찮으니까 같이 세뇌시켜 버리려고 했는데,
우선은 마나! 너부터 세뇌시켜 주마!”

“(이 괴인, 분명 강할 거야!
지금까지 싸웠던 몬스터들과는
다른 기척이 느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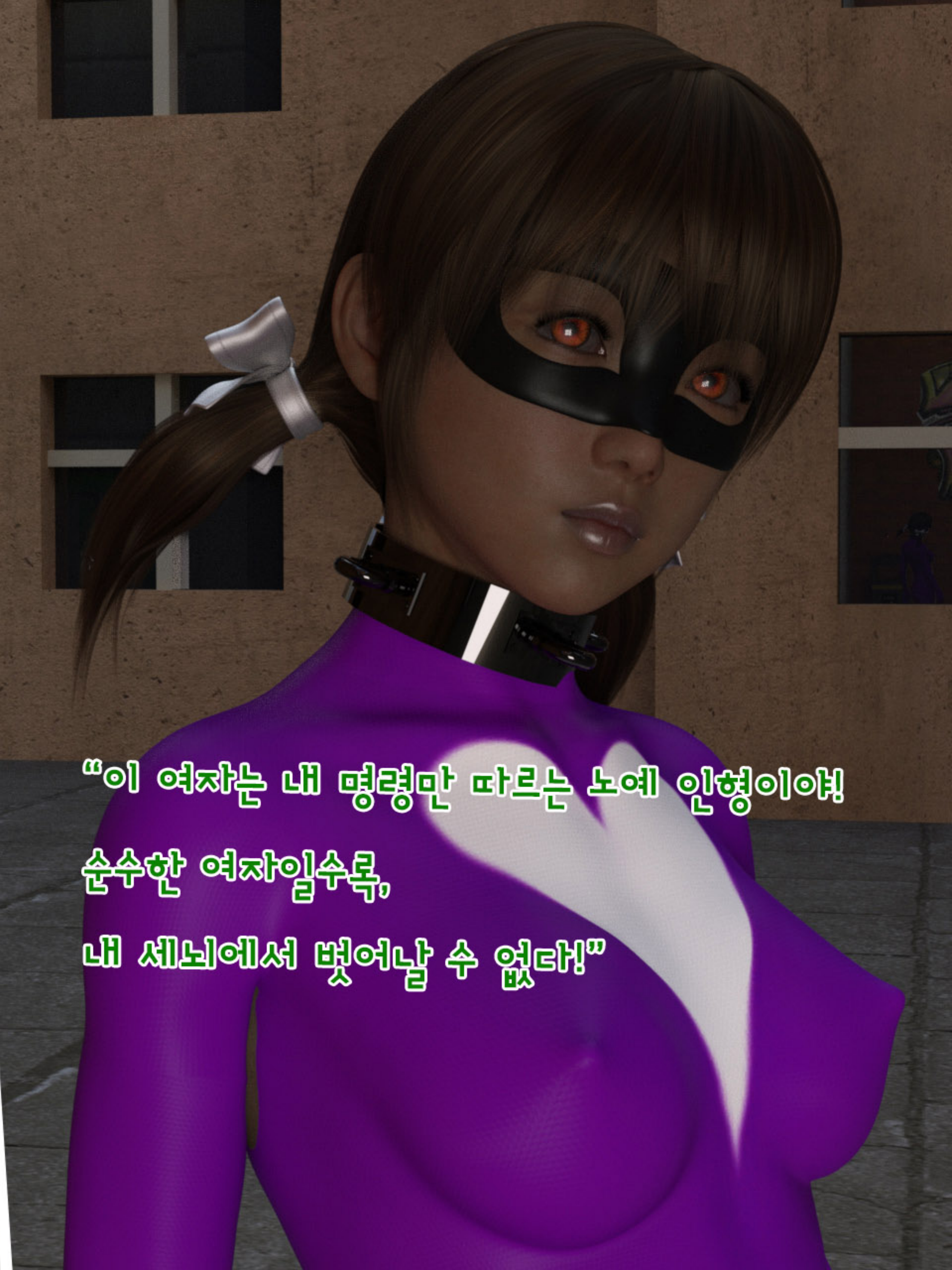
“여자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강화 슈트도 더 강해졌어!
나 혼자서라도 괴물을 쓰러뜨림 !”

“강한 여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 상대는 내가 아니야.
나와라! 내 노예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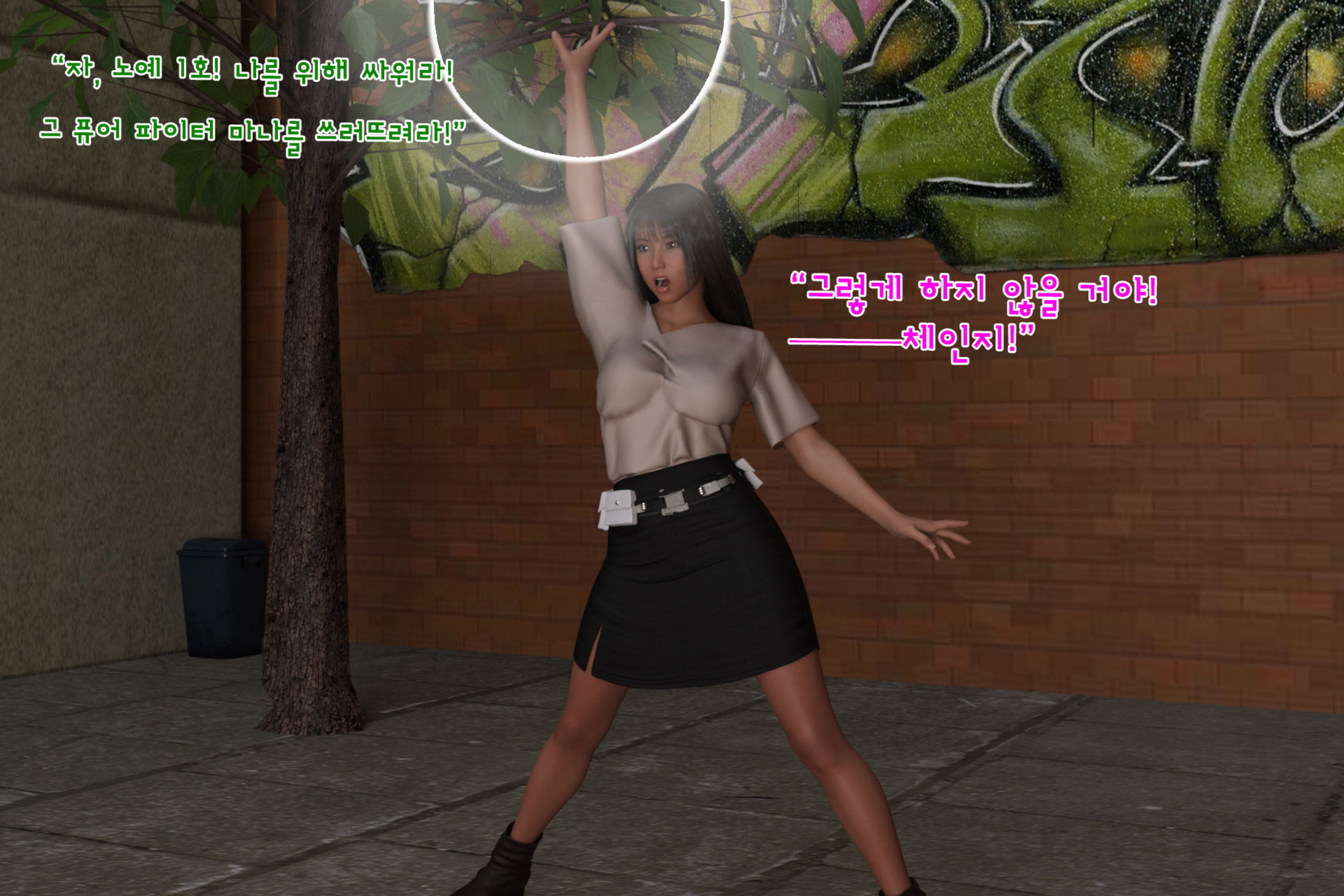
“당신 그 모습!
세뇌당한 거야?”



“이 여자는 내 명령만 따르는 노예 인형이야!
순수한 여자일수록,
내 세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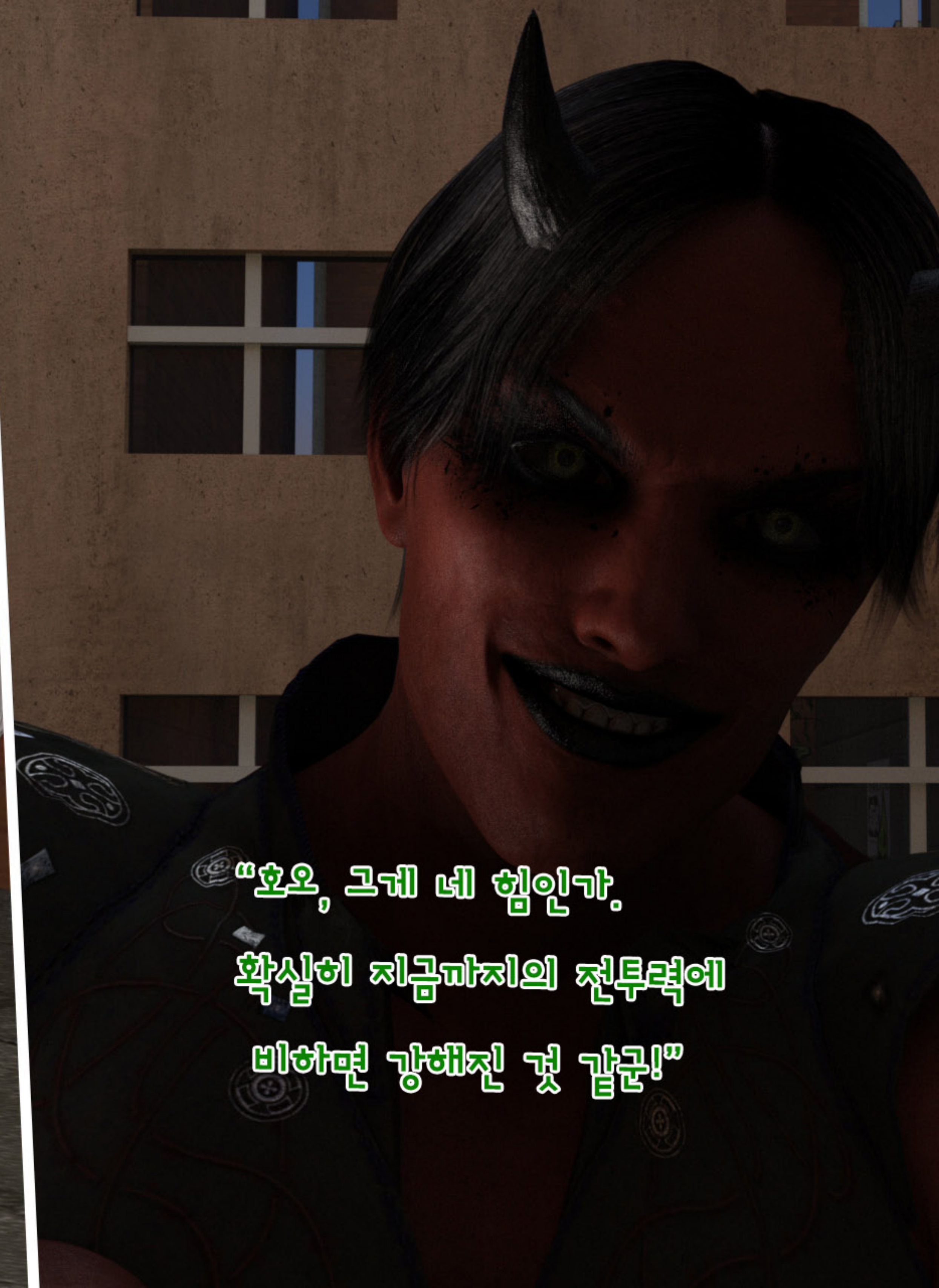
“자, 노예 1호! 나를 위해 싸워라!
그 퓨어 파이터 마나를 쓰러뜨려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체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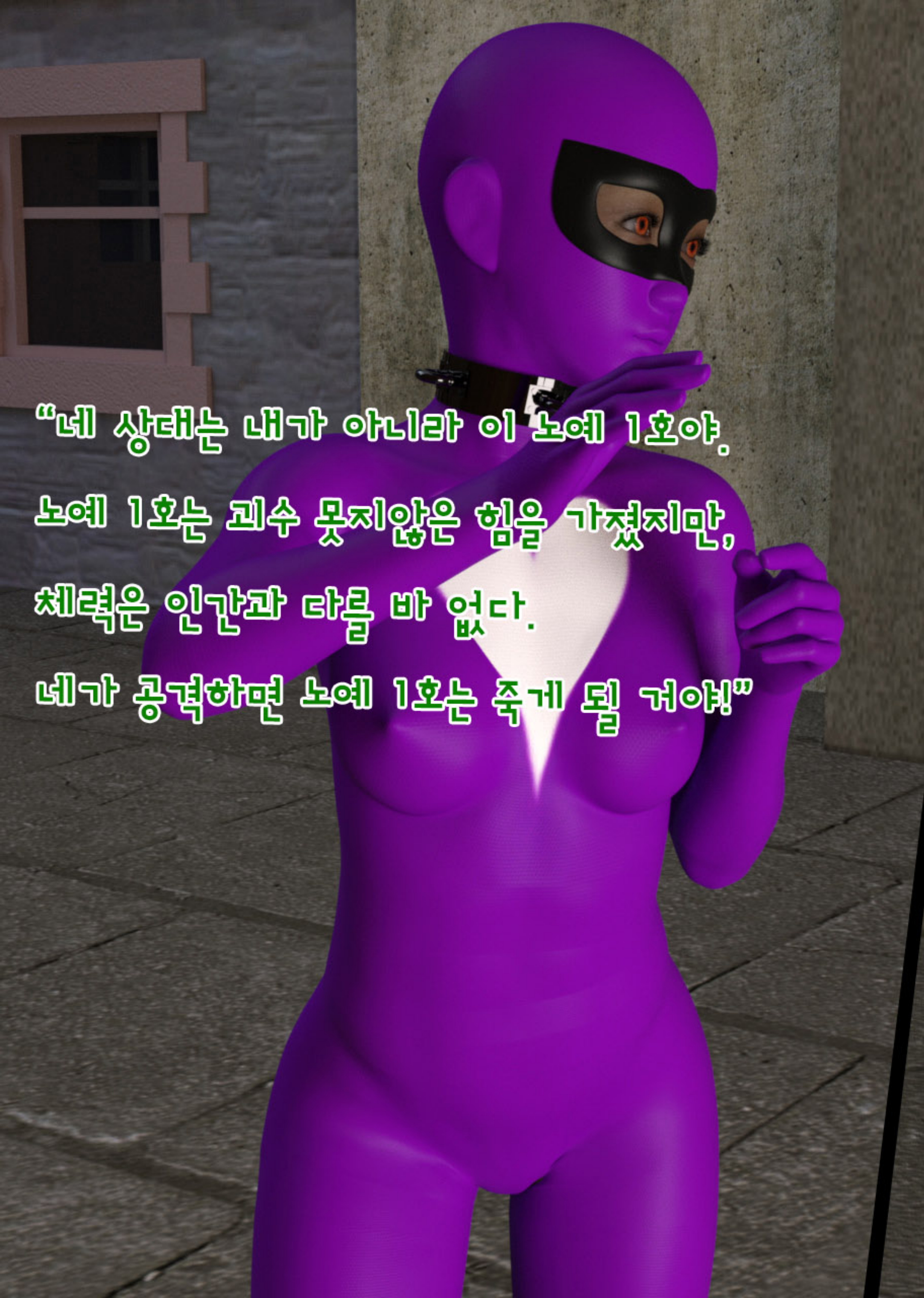




“퓨어파이터 핑크!
인류를 지키기 위해 괴물을 섬멸할 거야!”



“호오, 그게 네 힘인가.
확실히 지금까지의 전투력에
비하면 강해진 것 같군!”



“네 상태는 내가 아니라 이 노예 1호야.
노예 1호는 괴수 못지않은 힘을 가졌지만,
체력은 인간과 다를 바 없다.
네가 공격하면 노예 1호는 죽게 될 거야!”



“이 비겁한 녀석아!
정정당당하게 나와 겨뤄라!”



“우우!”

퍼크!!

노예 1호는 주저 없이 퓨어파이터
핑크에게 공격을 퍼붓는다.
괴인 마오의 말대로 노예1호의 힘은
다른 괴인들과 태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퓨어파이터 핑크!”

노예 1호의 공격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퍽!!

“아프다!

하지만 단순한 공격만 하는!

이럴 때는 힘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기절시켜야!”

“좋은 판단이다!

하지만 단순하지만 방심하면 큰일 날 수 있어!

노예 1호! 안아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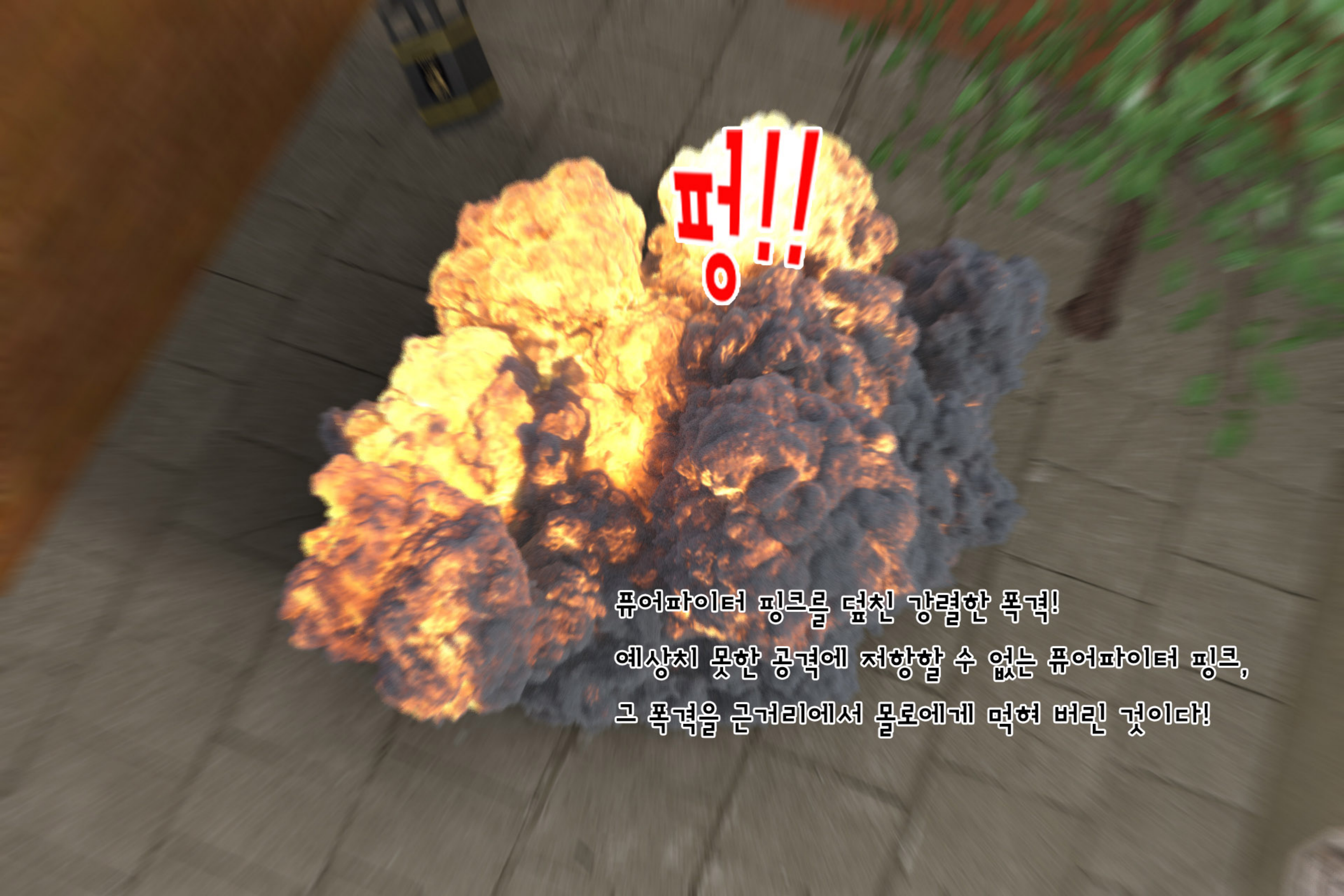
“뭐, 뭐야!”

노예 1호의 가녀린 팔이 퓨어파이터 핑크의 몸을 껴안았다!
가볍게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괴물급 파워를 가진 노예 1호는 쉽게 떨쳐낼 수 없다!

“이런 힘이...!
이럴 땐 슈트의 최대 파워로——”

“자폭”

“어?”



퍼!!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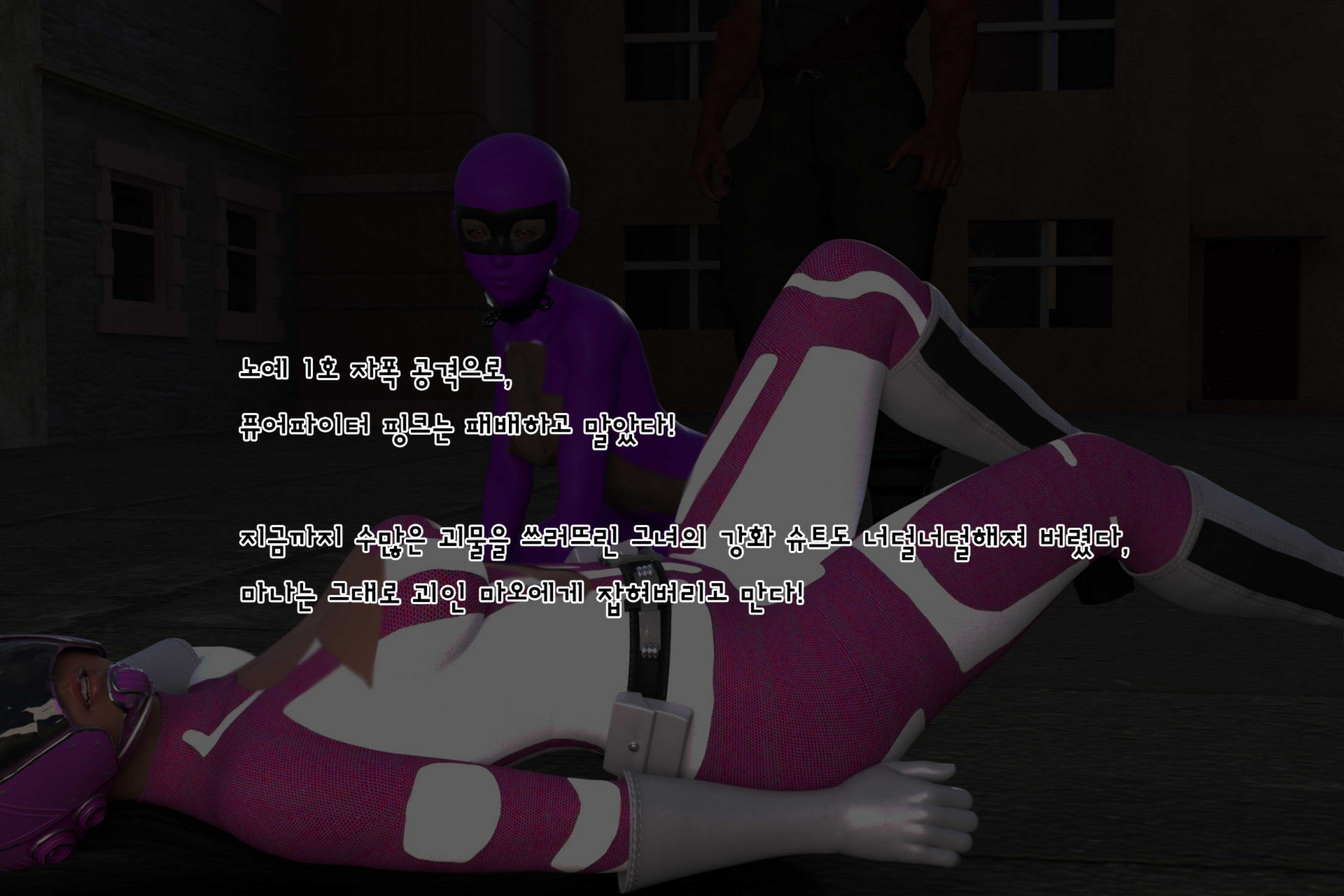
퓨어파이터 핑크를 덮친 강렬한 폭격!
예상치 못한 공격에 저항할 수 없는 퓨어파이터 핑크,
그 폭격을 근거리에서 몰로에게 먹혀 버린 것이다!

“아하하하하!

잡했어, 노예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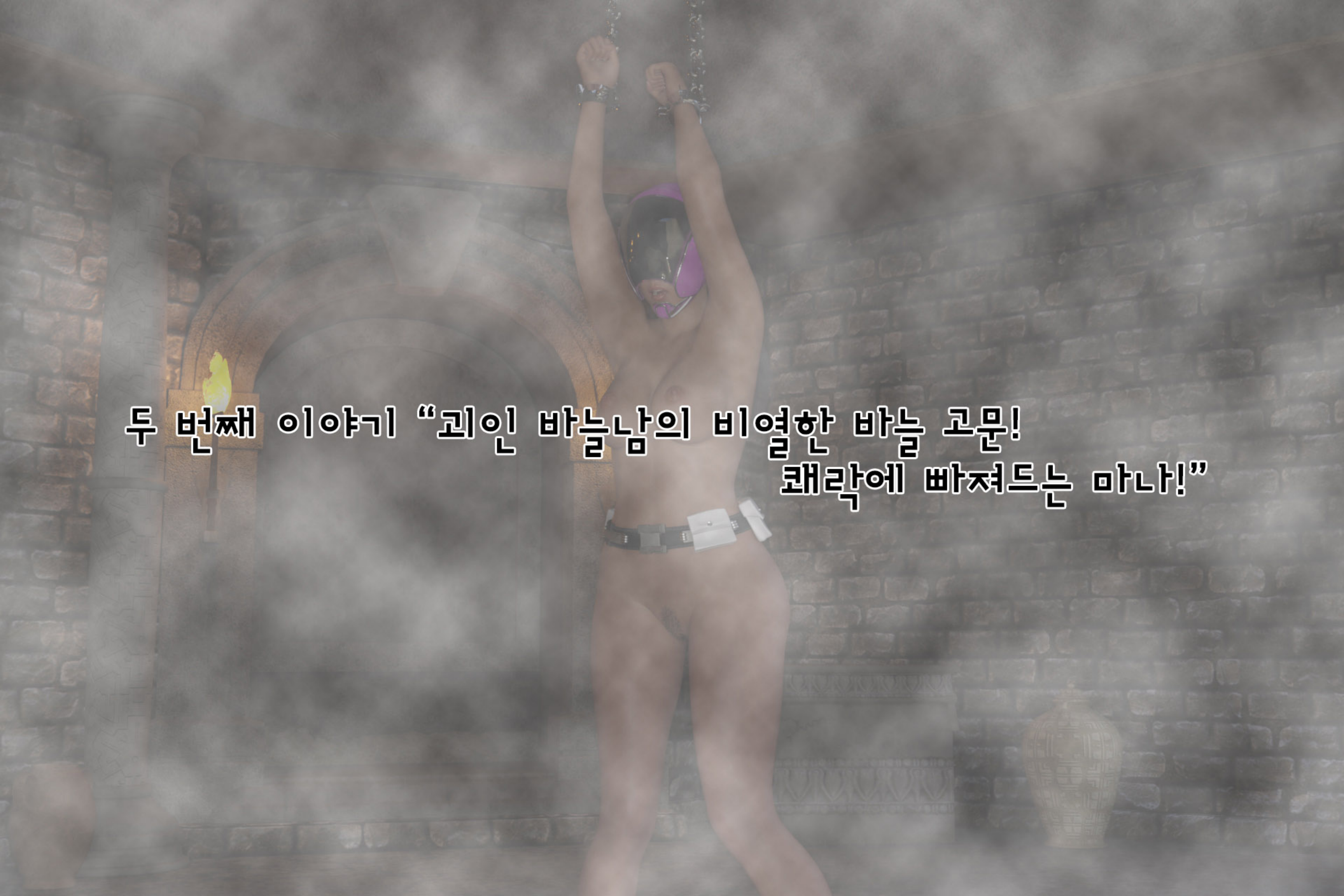
나중에 널 충분히 사랑해 줄게!”

“우.....”



노예 1호 자폭 공격으로,
퓨어파이터 핑크는 패배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괴물을 쓰러뜨린 그녀의 강화 슈트도 너털너털해져 버렸다,
마나는 그대로 괴인 마오에게 잡혀버리고 만다!

A woman is suspended in the air, hanging from two vertical chains. She is wearing a purple mask that covers her eyes and nose, leaving only her mouth visible. She is also wearing a black belt with a white rectangular object attached to it. Her arms are raised, and her hands are gripping the chains. The background is a stone wall with a large, arched opening. A small, glowing yellow flame is visible on the left side of the arch. The overall atmosphere is dark and mysteri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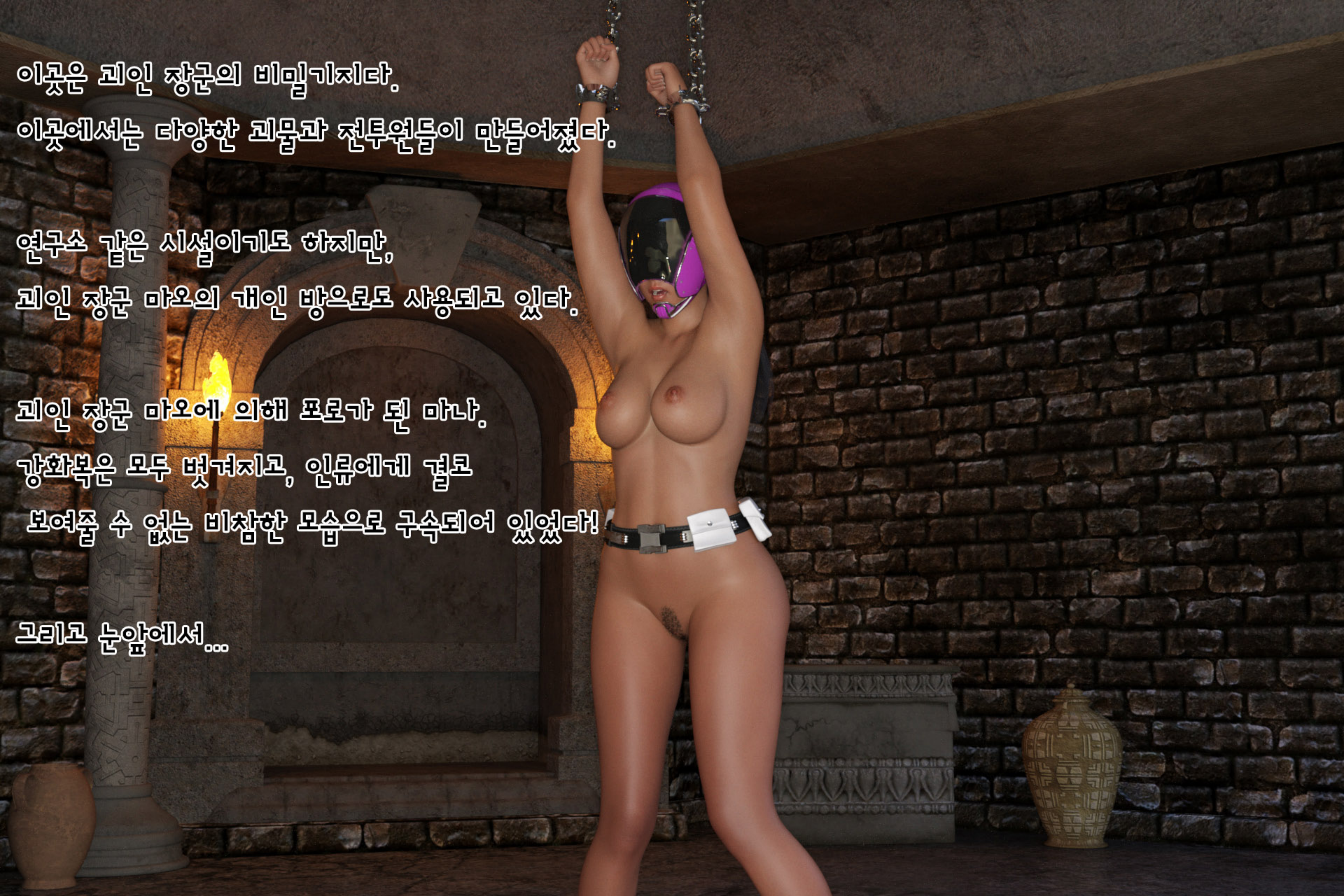
두 번째 이야기 “괴인 바늘남의 비열한 바늘 고문!
쾌락에 빠져드는 마나!”

이곳은 죄인 장군의 비밀기지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괴물과 전투원들이 만들어졌다.

연구소 같은 시설이기도 하지만,
죄인 장군 마오의 개인 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죄인 장군 마오에 의해 포로가 된 마나.
강화복은 모두 벗겨지고, 인류에게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구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서...



“아♡ 아♡ 마오님 아아아~~♡
더♡ 더 밀어올려줘요♡♡”

“귀여운 녀석이야!
원하는 만큼 밀어붙여 줄게!”

괴인 노예 1호로 전락한 소녀와 괴인이
테담하게 육체를 드러내며 얹히고설킨다!

♡♡♡♡♡

♡♡♡♡♡

♡♡♡♡♡



“내 눈앞에서 성행위를 하다니...”

“(그러나 뭐야...?
괴인 주제에 여자애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다니.....)”

“(잘 보면 유키보다 더 커...)”



구츄♡

구츄♡



“네가 퓨어 파이터 핑크구나.
강화복도 찢어지고, 압몸으로 구속되다니!
우스꽝스럽군.”


“저기 있는 건 누구야!”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괴인 바늘남!
장군님의 측근이란 바로 나다!”

괴인 바늘남

자랑거리인 가느다란 바늘로 인류를 고통과 쾌락에 빠뜨리는 괴인.
괴인 장군의 측근이자 고문관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런 모습만 아니었으면...
너 따위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는데...!”

“뭉여 꼼짝도 못하는 너 따위,
일반 여성과 다를 바 없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너는 오늘부터 장군님의 노예 2호가 되는 거다.
정의의 여주인공인 퓨어 파이터 마나가
마오 장군의 노예가 되면 인류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

“내가 괴인의 노예로?
웃기지 마주세요!
우리 퓨어파이터의 정의의 의지는 강해!
너희 같은 괴물들한테!
이 내가 노예로 전락할 리가 없어!”

“벌거벗은 몸으로 저항해라!
내 바늘 고문으로 너를 장군님의 노예로 세뇌시켜 주마.”

“나는 반쪽짜리 고문으로 타락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훈련도 하고 있어요.
절대로! 너희들의 고문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몇 분 후...

“하...

하...♡

아아...♡♡♡”

“아아앙♡♡♡♡♡”

“후후후후!”

내 바늘 고문은 효과가 있을 거야!
어떤 여자도 이 바늘고문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마나의 몸 곳곳에 가느다란 바늘이 꽂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바늘남이 가혹하게 가하는 고문 중 하나다.

하지만 마나가 느끼는 것은 결코 고통이 아니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쾌감과 통증이 느껴진다.

게다가 바늘남의 바늘이 접점을 억제하는 경혈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고문이 끝나지 않는 한 접점할 수 없는 쾌락이 계속된다!

마나는 끝이 없는 미친 듯한 쾌감과 통증에
허리를 휘저으며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바늘에 찔린 곳이 왜감이지?
다음에는 어디를 찔러줄까?
젖으로 할까, 항문에 할까 ...
아니면 음핵에...”

“아니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용서해주세요♥♥♥♥♥”

“호호호호!

장군님! 이제 퓨어파이터 마나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류 멸망의 첫걸음입니다!”

“잡했어, 바늘남자!

내 오른팔인 바늘남의 고문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 바늘을 뽑아서 그 미친

쾌락에서 해방시켜 주마!”

“아아♡♡
이런 저속하고 비겁한 수법을 쓰다니!”

“뭐라 말해도 좋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교묘한 수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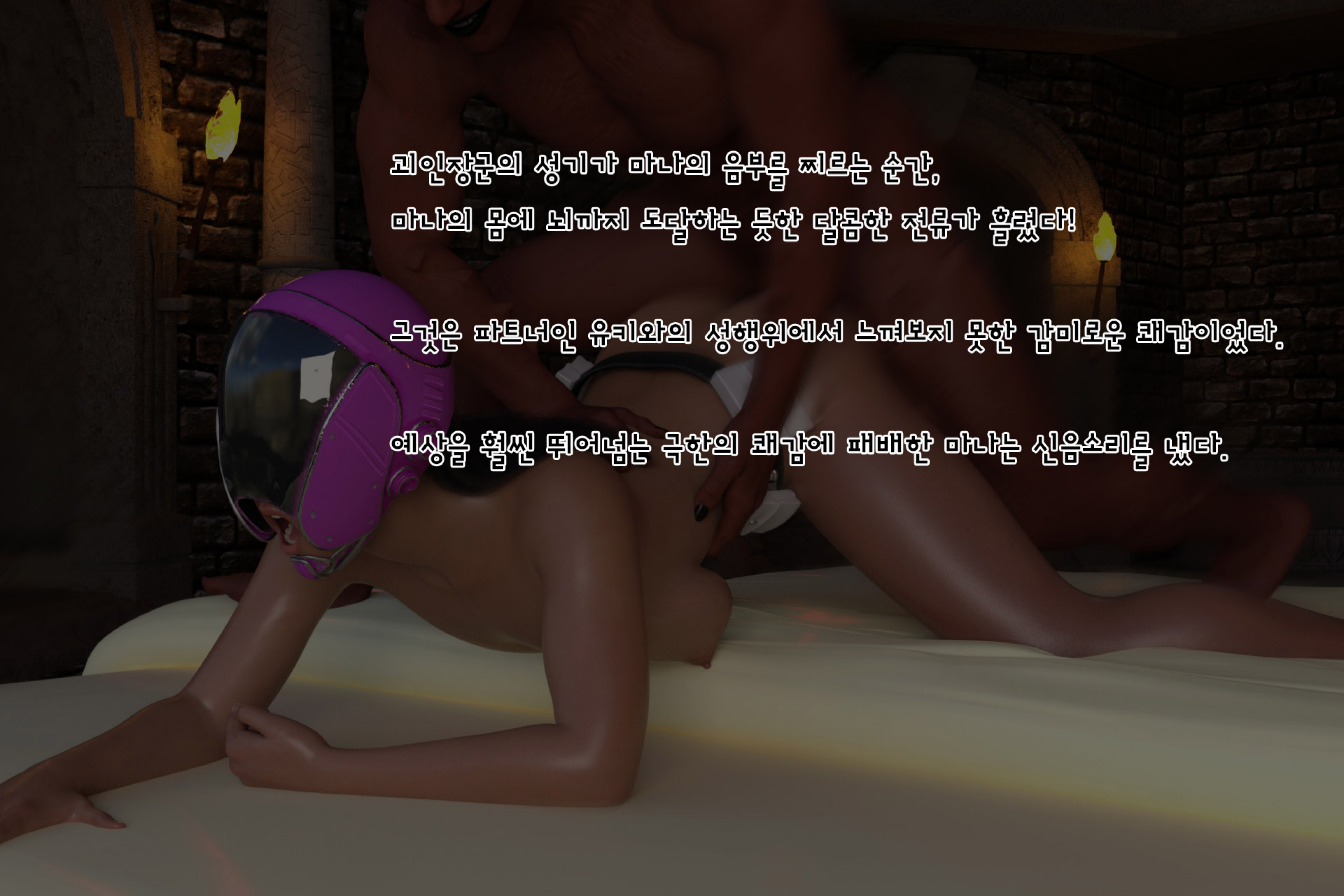
“아아♡
지금 그런 걸 끼워 넣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다음엔 이 불타는 고기 막대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쾌락을 심어 주겠다!
고맙게 생각해라!”



철떡!♡


“으아아아아아! ♡♡♡”



괴인장군의 성기가 마나의 음부를 찌르는 순간,
마나의 몸에 뇌까지 도달하는 듯한 달콤한 전류가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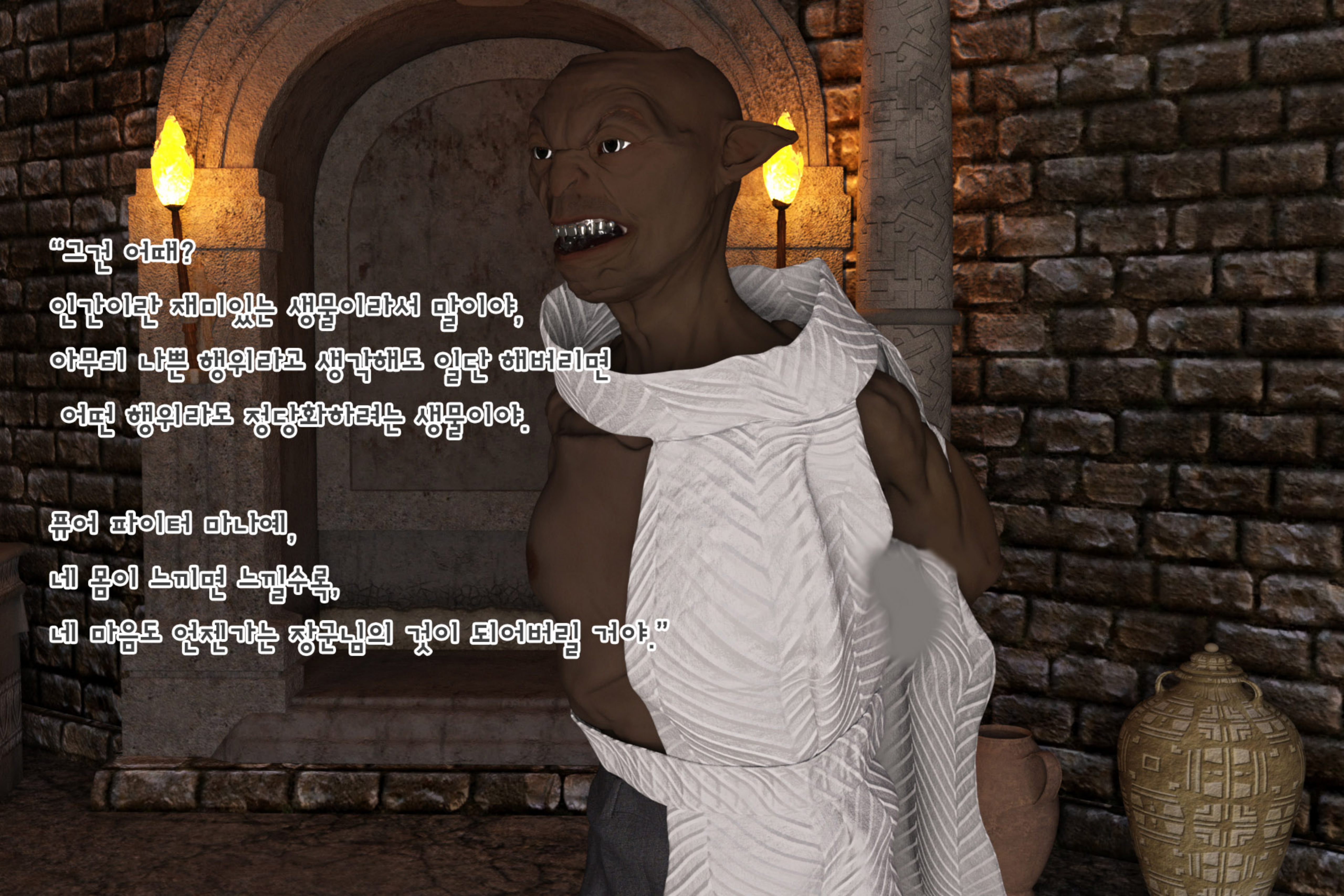
그것은 파트너인 유키와의 성행위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미로운 쾌감이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극한의 쾌감에 패배한 마나는 신음소리를 냈다.



“어때? 성욕에 굶주린 여체에는 효과가 있겠지!
네 몸은 이미 내 것이다!
더 이상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렸어!”

“아♡몸이 느껴졌다고 해도,
내 마음까지 당신 것이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런 어때?

인간이란 재미있는 생물이어서 말이야,
아무리 나쁜 행위라고 생각해도 일단 해버리면
어떤 행위라도 정당화하려는 생물이야.

푸어 파이터 마나예,

네 몸이 느끼면 느끼수록,

네 마음도 언젠가는 장군님의 것이 되어버릴 거야.”

“이제 퓨어파이터 터블은

내 노예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부터는 내 노예로 움직여 주겠어!”



“아아♡오오♡♡♡

기분 좋다♡♡

안 돼! 아아♡

유키! 도와♡♡♡”

구췌♡

구췌♡